

SK, 신 성장동력에 17조원 투입

10년간 3대 신규사업 집중육성 ... 신에너지·스마트환경·혁신기술

SK그룹이 앞으로 10년간 신규사업에 1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SK그룹은 6월30일 최태원 회장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가 참석한 성장전략 회의에서 신규사업 투자를 결정했다고 7월1일 발표했다.

SK그룹은 ▲신에너지 자원 확보 ▲스마트 환경 구축 ▲산업혁신기술 개발을 3대 핵심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17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광, 바이오연료, 2차전지 등 친환경·저탄소 미래 에너지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원유·가스 10억배럴(2015년), 철광석 3000만톤(2020년), 천연고무 생산량 2만4000톤(2020년)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 주력기로 했다.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수처리 사업, 친환경소재 개발 등에도 2020년까지 4조2000억원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2010년 투자규모는 ▲산업혁신 기술개발 7000억원 ▲신에너지 자원 확보 4000억원 ▲스마트환경 구축 2000억원 등 신규사업 투자분 1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산업혁신 기술 개발 8000억원 ▲신에너지 자원 확보 4조5000억원 ▲스마트환경 구축 4500억원 등 1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1>